■ 민족문화연구 제82호(2019.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9-39.
http://doi.org/10.17948/kcs.2019..82.9

【특집: 조선 후기 개인 담론과 자술 문학】

18세기 自傳에서의 他者化 양상과 그 의미*
—李德懋와 兪漢雋을 중심으로—

김경(金景)**

목 차

1. 서론
2. 自傳에서 他者化의 전개양상
3. 18세기 自傳에서의 他者化 양상
4. 18세기 自傳에서 他者化의 의미 :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은 他者化를 통해 18세기 自傳에서의 전형과 변주를 확인하였다. 자전에서 대표적인 타자화는 '자기타자화'와 '設論'이다. 자전은 傳의 하위장르이기 때문에, '자기타자화'는 그 체재를 답습하는 것이다. 즉 자전에서 자신을 타자화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공인인 기록자로서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설론'은 가상의 인물인 或者와의 문답을 통해 서술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자전에서는 주로 힐문에 답한다는 설정하에, 작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 변호하는 성격으로 활용되었다.

* 이 논문은 2018년 12월 1일에 근역한문학회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동아시아 문명과 한국' 기획팀이 공동 기획한 〈조선후기 개인담론과 자술문학〉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근역한문학회 추계기획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전통문화대 교양기초학부 강사.

18세기 자전에서도 이와 같은 타자화는 전형성을 지니면서도 변주적 양상 또한 확인되었다. 李德懋의 「看書痴傳」에서는 '자기타자화' 전략을 통해 객체인 '간서치'는 주체가 되었고, 이와 함께 이덕무 자신이 추구한 自娛는 個我을 지니게 되었다. 俞漢雋의 「自傳」은 '설론'을 통해 과거의 시점에서 저술된 자신을 재확인하면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타자화하는 것은 물론, 분열된 자신을 통해 자기위안과 자기정체성을 동시에 이끌어내었다. 이를 통해 허구성을 통한 '자신을 낯설게하기'라는 타자화 양상이 확인되었다. 다만 18세기 자전에서 '자신을 낯설게하기'는 형식보다 내용에서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즉 형식에서는 타자화의 전형성을 유지하였지만, 내용에서는 '文章自娛'를 公的인 것이 아닌 私的인 것으로 규정하며 당대의 고정된 사유에 저항하였다.

주제어: 自傳, 他者化, 設論, 낯설게하기, 李德懋, 俞漢雋.

1. 서론

서구에서는 自傳文學의 성립조건으로 저자와 화자 그리고 대상인물의 동일성을 주장한다.[1] 하지만 한문학 영역에서는 이 세 가지의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데, 주된 이유는 저자가 자신임에도 '나'라 하지 않고 '그'로 타자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주로 自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2] 이는 傳이 지니는 장르적 속성과 관련된다. 전이란 어떤 인물의 생애와 인품 등을 기록하는 장르

1) 필립 르죈,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15-19면 참조. 자전문학과 비슷한 용어로 '자서전', '자서전적 진술', '자전적 서술', '자전적 서사'라는 다양한 글쓰기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자기서사'라 사용하기도 한다.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여성문학회, 2002. 이는 외연을 확장한 의의가 있으나, 한문학에서 운문과 같은 自挽詩 등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가와이 코오조오, 심경호 옮김,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 2002와 심경호, 『나는 누구인가』, 이가서, 2010의 논의를 이어받아 自敍, 自序, 自傳, 自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전문학'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물론 '자전문학'이라 지칭하게 되면 '문학'의 개념이 동원되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自傳은 가공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등의 허구성과 상상력을 수반하고 있기에, 그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자기서사'보다는 '자전문학'이란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자신을 타자화하는 것은 自傳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自敍, 自挽詩 등에도 확인된다. 임준철, 「支流와 還流 : 自傳文學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自挽詩」, 『민족문화연구』 제76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87-97면 참조.

이기에 저자와 대상인물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전'이란 용어 자체가 모순이다. 이러한 태생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 타자화이다. 즉 자전에서 자신을 타자화 한 일차적인 이유는 자신이 자기의 傳을 쓴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

타자화는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게 만드는 행위이다. 그러나 타자화의 대상이 자신의 되었을 경우, 그는 객체화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전에서는 자신이 자기의 전을 집필한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타자화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자전의 전형으로 자리하였다. 즉 '나'는 '그'의 배후에 숨어 자신의 부재를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나'의 회고에 의해 관찰되는 대상이기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타자화는 '나'의 부재이면서도, 부재함으로써 자신을 새롭게 조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있다. 아울러 저자는 자신을 가상의 인물로 설정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면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허구적인 인물로 설정하는 것은 托傳계열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허구적으로 설정된 인물을 통해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제약에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있다.

그런데 자전에서 타자화란 개인의 표현욕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및 시대적 배경에 해당하는 외적 요건과도 연계된다. 자전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가상인물인 타자와의 문답을 통해 자기주장을 진행하는 '設論'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론에서 가상의 타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방식과 이상적 삶에 대한 추구를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설론의 체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아울러 살필 수 있다.

요컨대 자전에서 타자화는 서구의 자전문학과 구별되는 지점이자, 자전의 특징적인 면모를 구명할 수 있는 방식이며, 작품의 내·외적 요인을 동시에 구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물론 타자화에 대한 논의는 기존연구에서도 주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3] 다만, 그 전개양상과 특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타자화 전략이 개인의 표현욕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가 동시에 반영되기에, 구체적인 양상과 그 의미를 포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타자화 방식을 살피기 위해서는 개별 작품뿐만 아니라 계열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며 나아가 통시적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타자화의 통시적 접근을 위한 예비단계로 斷代史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특징적 국면을 드러내기 위해 여타 시기보다 자전에서의 개인별・시대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18세기로 제안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주어진 사물의 모방이 아닌 작가 자신의 표현이라는 사상이 대두되면서 개성적 면모가 부각되었고, 또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신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4]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18세기 이전까지 타자화 방식의 전형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18세기에서 자전을 남긴 문인 가운데, 일탈적 면모가 두드러지는 작가와 그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이 시기 자전에서의 타자화 양상과 그 성격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논의의 銳角化를 위해 '자기타자화'와 '설론'을 주된 서술방식으로 활용한 작품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즉 '자기타자화'는 李德懋(1741-1793)를, '설론'은 兪漢雋(1732-1811)을 중심으로 18세기 자전에서의 타자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탈적 면

3) 대표적으로, 가와이 코오조오, 앞의 책은 탁전을 '이러하고 싶은 나'라 하였는데, 탁전의 주된 특징을 자신에 대한 타자화로 보았다. 심경호, 앞의 책은 한자문화권 자전의 특징으로 타자가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서구의 자전문학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하였는데, 이 또한 자전의 특징을 자신에 대한 타자화 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안득용, 「자아의 유형에 따른 전근대 자서전의 분류와 그 형성 배경」, 『고전과해석』 제17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4a는 Wu, Pei-yi, *The Confucian's progress—autobiographical writings in traditional China*—,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자아의 4가지 계열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허구화의 여부에 따라 虛構的 자아와 歷史的 자아로 나눌 수 있고, 다시 역사적 자아는 자아의 시선에 따라 記述的(公的) 자아와 省察的(私的) 자아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허구적 자아는 자신을 가상의 인물로 설정하는데, 이에 사용되는 전략이 바로 자신에 대한 타자화이다.

4) 일례로 自編 문집의 편찬이 증가하면서 自序의 창작이 활발해졌다. 김수진, 「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 『어문연구』 제41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조선시대 자편문집에 대한 탐사—규장각 소장 자편문집의 발굴과 분석」, 『서지학연구』 제68집, 한국서지학회, 2016; 정용건, 「조선후기 문집 自序의 창작과 그 특징—자기 사사로서의 면모와 관련하여」, 『민족문학사연구』 제6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모가 부각되는 18세기에 자전에서 무엇이 유지되었고, 무엇이 변주되었는가를 구명하는 동시에, 자전에서 타자화 전략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自傳에서 他者化의 전개양상

'자전에서 타자화의 전형성이 18세기에 어떠한 면모로 변주되는가'라는 답변을 위해, 이 장에서는 타자화 방식인 '자기타자화'와 '設論'을 중심으로 그 전개양상을 먼저 서술하고자 한다.

자전[5]은 자기규정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누구이다'로 시작된다. 하지만 '나'라고 직접 서술하지 않는다. 때문에 '余'라든가, '我'라든가 하는 명확한 1인칭을 사용한 것은 특수한 예에 해당한다. 즉 서술자가 자신임이 분명하더라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과 타자를 가리키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자전이 傳의 하위장르이기 때문에 그 체재를 답습하는 것이다. 즉 기록자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기록이지만, 공인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하여 서술자인 자신은 집필자로서의 객관적 자리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자신에 대한 지칭은 家系를 밝히는 부분에서 서술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자전뿐만 아니라 自序에서도 동일하다. 司馬遷(B.C.145?-B.C.86?)의 경우, 가계 및 부친인 史馬談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서술하였다. 즉 사전의 경우 가계・성명・字・號는 작품 서두에 등장하는데, 자서 및 자전에도 이와 같은 방식은 전형성을 지닌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자, 타인에게 자신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나아가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관점에서 자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런 태도에서 개별적 자아보

5) 본고에서 자전은 작자 스스로가 지은 傳을 의미한다. 또한 자전은 작자와 대상인물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史傳계열과 托傳계열로 구분하고자 한다. 자전의 분류에 대해 심경호는 자기의 일생 사적을 기술한 전을 자서전 계열, 자기를 추척하기 보다는 고정된 자기의 상을 묘사하는 것을 탁전계열로 지칭하였다. 심경호, 앞의 책, 623-638면. 본고에서는 타자화 측면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기술된 대상인물이 사실성을 지니면 사전계열, 허구성을 지니며 탁전계열로 지칭하고자 한다. 즉 사전계열은 '작자=화자=대상인물', 탁전계열은 '작자=화자≠대상인물'임을 말한다.

다도 집단적 자아를 우선시하였다는 점이 드러난다.[6] 그런데 자신을 타자화하는 방식은 自序보다는 自傳에서 주로 확인된다.[7]

표1. 〈중국 자서 및 자전에서의 인칭 타자화 비율〉

구분(작품수)		1인칭	3인칭	비율
자서(52)	독립적 자서(33)	18	15	45.4%
	문집 자서(19)	10	9	47.4%
자전(48)	史傳 계열(18)	1	17	94.4%
	托傳 계열(30)	0	30	100%

위 표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자서에서는 '余'나 '予'와 같은 1인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전에서는 대부분 이름이나 호와 같은 3인칭이 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다. 자전에서의 자신에 대한 인칭은 모두 3인칭으로 타자화하였다.[8]

자서보다 자전에서 자신을 보다 타자화하는 이유는 전술하였듯이, 형식적 부분에서 傳의 장르적 관습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작품화된 대상인물의 허구성을 동반하기 위한 이유도 병존한다. 이는 자전을 史傳계열과 托傳계열로 구분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托傳이나 자전에서의 '그'를 비롯한 3인칭과 自撰 碑誌, 年譜, 筆記에 보이는 공식적 명칭으로서 3인칭의 성격은 다르다. 특히 '작가≠주인공'이라고 시치미를 떼며 허구화하는 사례는 탁전과

6) 자기규정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질문은 화자들의 소통에서 최초의 의미를 찾는데, 나의 가계에서부터 나를 가장 중요하게 정의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도덕적・정신적 방향의 공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찰스테일러, 권기돈・하주영 옮김, 『자아의 원천들』, 새물결, 2015, 81면; 가와이 코오조오, 앞의 책, 41-43면 참조.

7) 표1은 두 권의 책을 자료로 삼아 작성하였다. 杜聯喆, 『明人自轉文鈔』, 藝文印書館, 1977; 郭登峯, 『歷代自敍傳文鈔』, 臺灣商務印書館, 1965.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대상의 추가가 필요하나, 대체적인 경향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史傳 계열의 경우, 昭經邦의 「弘齋先生自傳」에서만 余를 사용하였다.

8) 자세한 사항은 〈부록-2〉를 참고하기 바란다. 自傳의 경우 모두 자신을 3인칭화 하였다. 다만, 鄭仜(1601-1663)의 「愚川隱者傳」에서는 자신을 '余'와 '愚川隱者'를 병기하였다. 自序의 경우, 張維(1587-1638)의 「谿谷草稿自敍」, 梁慶遇(1568-1629)의 「自跋」, 金尙憲(1570-1652)의 「淸陰草稿自叙」, 申混(1624-1656)의 「自序」, 洪世泰(1653-1725)의 「自序」, 趙正萬(1656-1739)의 「寤齋稿自跋」, 李英輔(1687-1747)의 「詩稿自序」, 金憲基(1774-1842)의 「自序」 등에서 자신을 '余'로 1인칭화 하였다.

자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달리 말하자면, 자전에서 자신을 타자화하는 전략은 허구성을 수반한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작품은 陶淵明(365-427)의 「五柳先生傳」이다.[9]

동시에 자신에 대한 명명은 주로 號로 지칭하는데, 투식처럼 사용되는 '성과 자를 알 수 없다'는 기록과 함께 文頭에 등장한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요소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요소들이 缺落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현실 세계로부터 일탈한 존재, 즉 허구로 설정된 인물을 기술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10] 즉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자신은 현실에 있을 수 없기에 허구성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는 자신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결국 텍스트 내에서 허구성과 사실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작가가 자신을 타자화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史傳에서는 인물의 경위나 사적을 기록하기 때문에 서사가 주된 서술방식이다. 그러나 자전에서는 의론이 서술방식으로 가미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작품에서 가상의 인물인 客이나 或者와의 문답을 통해 서술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設論이라 한다. 설론은 문답식 산문으로 그 기원을 『莊子』·『列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문답식 산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賦·論·說·記·傳 등 다양한 문체에 흡수되며 작자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設論이라 지칭한 것은 蕭統(501-531)의 『文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작품을 39류로 구분하였고, 문답식의 작품에 대하여 다시 '對問'과 '設論'으로 세분하였는데, 소통은 설론의 특징을 가상으로 설정된 문답으로 상정하였다.[11]

그런데 『文選』의 設論 부에 거론된 작품인 「答客難」(東方朔), 「解嘲」(揚雄), 「答賓戲」(班固) 등은 모두 자기 삶에 대한 변호적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北宋

9) 탁전은 또한 寓意性이 강한 탁전과 自傳性이 강한 탁전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때문에 후자의 경우를 自托傳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득용, 「自托傳의 각 계열에서 보이는 자기인식의 형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71집, 한국한문학회, 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10) 가와이 코오조오, 앞의 책, 135면.
11) 우지영, 「문답식 한문산문에 대한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3, 3-14면 참조.

때 편찬된 『冊府元龜』에는 '自述'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12] 이후 설론은 자전에서 주로 힐문에 답한다는 설정하에, 작가가 스스로는 학문・도덕을 갖추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받지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 주장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陸龜蒙(?-881)의 「江湖散人傳」에서 확인되지만, 본격적으로 설문이 서술에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歐陽脩(1007-1072)의 「六一居士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崔瀣(1287-1340)의 「猊山隱者傳」에서 자신의 말을 직접인용 형태로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며, 자전에서 본격적으로 설론의 방식을 활용한 것은 成俔(1427-1456)의 「慵夫傳」이다.[13]

설문은 문답체이기에 논쟁을 통해 자기 정당화를 이끌어낸다. 이에 자전에서의 자기변호적 내용이 우세한 작품은 설문을 활용한 것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대부분 작품에서 화자는 客의 논지를 잃게 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지적 우월성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구현한다. 따라서 설론 역시 타자화 방식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자기타자화'에서는 자신을 타자화하였기에 하나의 존재만 등장한다. 설론의 경우에는 자신을 타자화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가상의 타자를 등장시키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때 등장하는 타자는 가상으로 설정된 허구의 인물이면서도, 분열된 자신이기도 하다. 허구적 인물이든, 분열된 또 다른 자신이든, 설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갈등적 관계로 설정되며 서로 간의 문답을 통해 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사적인 요소가 가미되기도 한다. 더욱이 허구로 설정된 인물이 자신이라면, 그 존재는 분열된 자신이기에 서로 모순적 존재들이다.

정리하자면, '자기타자화'는 문면에서 '작자=화자≠대상인물'로 설정되지만 결국 '작자=화자=대상인물'의 등식으로 성립된다. '설론'은 문면에서 '작자=화자≠대상인물≠가상인물'로 설정되지만, 가상인물이 또 다른 자신일 경우에는 '작자=화자=대상인물=가상인물'의 등식이 성립된다. 전자는 자신을 타자화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자신이 아닌 것처럼 서술하여 독

12) 3개의 작품은 설론 형식으로 구현된 자전의 원형이라 볼 수 있다. 박경남, 「兪漢雋의 道文分離論과 散文 세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62면.

13) 이후 成俔(1439-1504)의 「浮休子傳」, 崔忠成(1458-1491)의 「山堂書客傳」, 李汝穣(1556-1631)의 「炊沙老翁傳」, 李時善(1625-1725)의 「松月子傳」에서 설문의 체재가 활용된다.

자를 놀리는 듯한 유희의 요소를 더하게 된다.[14] 이러한 양상은 자전에서도 특히 탁전계열에 강한 규범을 유지하며 전형성을 지닌다. 후자는 자신을 타자화 한 대상인물과 또 다른 가상인물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때 가상인물은 또 다른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타자화된 자신을 다시 분열한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허구로 설정된 공간에서 서로의 문답으로 서술을 전개하는 방식이기에 상상력이 가미된다. 즉 자신이 설정한 인물 간의 문답이므로 客의 비판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지향과 이상을 드러내기에 효과적이다. 전자가 자전에서 전형적 성격을 지닌다면, 후자인 설문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지만, 전자에 비해 체재의 규범성이 약하기 때문에 느슨한 전형에 해당한다. 이는 설문이라는 체재가 傳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답식 산문이 傳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전자보다 자유로운 면모를 지닌다.

지금까지 타자화 전략을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자전의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타자화 전략인 두 가지 방식이 18세기 자전에서 어떠한 면모로 유지되는지와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18세기 自傳에서의 他者化 양상

18세기 한문산문에서 일탈적 글쓰기는 여타 시기보다 부각된다. 이러한 원인은 내・외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일하지 않지만, 당대 일탈적 글쓰기를 추구했던 문인들은 문학방면에서 지식인이 되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고, 문학이라는 틀에서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메시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일탈적 글쓰기는 개성을 동반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목한 결과들이다. 이 장에서는 문학경향에 있어 개성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시대인 18세기에 타자

14) 이는 자전뿐만 아니라 초상 자찬에서도 확인되는 점이다. 초상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짐짓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을 최대한 유예하거나 無期化하는 데서 오는 유희의 기류를 전개방식상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보인다. 김기완, 「조선후기 사대부 초상화찬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9, 58-60면 참조.

화 전략이 자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유지 및 변주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자신의 객체화를 통한 自娛의 個我 추구

자전의 주된 내용은 자신의 號에 대한 해명과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피력이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自娛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자오이기 때문에 타자와 공유하려는 태도보다는 스스로 즐기는 것에 만족한다. 그럼에도 이 즐김은 公利와는 대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18세기 조선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자오에 대해 스스로 즐긴다는 차원을 넘어 다른 이와 공유할 수 없는 것이자, 공리와 대치되는 성격을 지니는 면모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문장에 대해 스스로 즐긴다는 '文章自娛'는 도연명의 「오류선생전」에서 비롯된 이후, 자전에서 자신의 삶과 문학을 집약하거나 지향점을 피력할 때 투식처럼 사용되었다.

> ①木覓山 아래 어리석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말이 어눌해 잘하지 못하였고, 성품이 게으르고 옹졸하여 융통성이 없었으며 바둑이나 장기는 더더욱 알지 못하였다. 남들이 욕을 해도 변명하지 않았고, 칭찬하여도 뽐내지 않았으며 오직 책만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추위와 더위나 배고픔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②어렸을 때부터 스물한 살이 된 지금까지 하루도 옛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그의 방은 매우 작았다. 하지만 동쪽, 남쪽, 서쪽에 창이 있어 동쪽, 서쪽으로 해가 드는 곳에 따라 옮겨 가며 밝은 데에서 책을 보았다. ③보지 못한 책을 볼 때마다 기뻐서 웃으니, 집안사람들은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기이한 책을 구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특히 杜甫의 五言律詩를 좋아하여 읊기를 앓는 사람처럼 웅얼거렸고, 깊이 생각하다가 심오한 뜻을 알게 되면 매우 기뻐 일어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소리가 까마귀가 짖는 듯하였다. 어떤 때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눈을 크게 뜨고 멀거니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꿈꾸는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책만 보는 바보라 하여도 웃으며 받아들였다. ④그의 傳記를 써 주는 사람이 없기에 붓을 들어 그 일을 써서 「看書痴傳」을 짓고 그의 성명은 기록하지 않는다.15)

15) 李德懋, 「看書痴傳」, 『嬰處文稿』 卷2. "木覓山下, 有痴人. 口訥不善言, 性懶拙, 不識時務, 奕棋尤不知

이덕무의 自娛는 독서이다.[16] 이 글에서는 문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덕무가 문장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17] 그는 이 글에서 오로지 책을 읽는 즐거움만을 자기서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독서의 즐거움 극대화하였다. 이를 위해 '看書痴'라는 號의 정당성을 타자의 시선을 통해 객관화하였고, 나아가 탁전의 전형적인 서술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공감을 유도하였다.

또한 자오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전에서 상투적으로 서술하는 성품과 연계하였다. 성품에 해당하는 자는 痴이다. 이덕무는 痴를 懶拙로 부연 서술하였는데, 이는 時務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세속적 가치관과 대치되는 것이다. 이처럼 탁전에서 성품은 주로 세속의 가치와 무관하게 서술된다.[18] 세속의 가치와 무관하다는 것은 '不知何人'과 함께 현실 세계로부터 일탈한 사람이라는 것과 허구로 설정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 성품은 독서의 목적과 연계되는데, 그 목적은 명예나 이익의 추구가 아니다. 이는 「오류선생전」과 흡사하다.[19] 독서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고, 독서의 쾌락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다만 「오류선생전」의 후반부는 술에 대한 즐거움과 은거에 대한 즐거

也. 人辱之不辨, 譽之不矜, 惟看書爲樂, 寒暑飢病, 殊不知. 自塗鴉之年, 至二十一歲, 手未嘗一日釋古書. 其室甚小, 然有東牕, 有南牕, 有西牕焉, 隨其日之東西, 受明看書. 見未見書, 輒喜而笑, 家人見其笑, 知其得奇書也. 尤喜子美五言律, 沉吟如痛疴, 得其深奧, 喜甚, 起而周旋, 其音如鴉叫, 或寂然無響, 瞠然熟視, 或自語如夢寐人. 目之爲看書痴, 亦喜而受之. 無人作其傳, 仍奮筆書其事, 爲看書痴傳, 不記其名姓焉."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DB를 참조하되,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였다.

16) 이덕무의 독서에 대한 애호는 「蟬橘堂濃笑」에서도 확인된다. "讀人得意之文, 狂叫大拍, 評筆掀翻, 亦宇宙間一遊戲."

17) 이덕무는 한때 문학을 유희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李德懋, 「書諸子書目後」, 『靑莊館全書』 卷4. "然何必傳世之爲愈, 靜居著述, 聊以自娛迺可也. 古今人自娛者, 又幾人歟! 欲傳于世者, 過半也歟!"; 「嬰處稿自序」, 『靑莊館全書』 卷3. "維余自童子日, 性無它所好, 能嗜文章, 亦不能善文章, 惟嗜也."

18) 중국의 경우 嬾·懦·拙懶 등이 사용되고, 우리나라 자전에서는 慵·痴 등이 사용된다. 이 외에도 스스로를 어리석고[癡] 미쳤으며[狂] 우활하다[迂] 생각한 조선후기의 적지 않은 문인지식인들이 자서전을 창작했다. 18세기에는 이덕무 이외에 趙秀三(1762-1849) 또한 「經畹先生自傳」에서 자신을 狂士라 하였다. 안득용, 「조선후기 자서전의 특징적 局面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56집, 한국한문학회, 2014b, 431-435면 참조.

19) 「오류선생전」에서는 "閑靖少言, 不慕榮利, 好讀書, 不求甚解, 每有意會, 便欣然忘食."하였는데, 독서를 수단으로 삼아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自娛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움으로 서술이 이어지는데, 향유하고자 하는 즐거움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이다. 반면, 이덕무는 오로지 독서의 즐거움만을 서술하고 있다.

[2]에서는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어 현실적 제약을 서술하였다. 이덕무의 독서에 대한 즐거움은 현실적인 요소인 가난과 대립하면서 公利와 대치된다.[20] 그럼에도 세속에 대한 반항은 전무하고 오히려 자신의 내적 즐거움을 서술의 중심에 배치하는데, 이는 독서의 즐거움을 對他的 방향이 아닌 對自的 방향으로 이행하게 한다.[21] 즉 "其室甚小, 然有東牕, 有南牕, 有西牕焉, 隨其日之東西, 受明看書."는 가난을 단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러한 물질적 제약은 오히려 독서의 즐거움을 방해하기보다는 가난을 괘념치 않는 모습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런데 「오류선생전」에서의 즐거움은 『論語』의 구절인 "簞瓢"를 통해 쾌락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담박한 태도로 회귀하며 내면세계의 안정을 구축한다. 조선의 경우, 이덕무 이전에 崔忠成(1458-1491)이 「山堂書客傳」에서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서술하였는데, 역시 "簞食瓢飮"이란 구절을 차용하여 독서의 공리적 성격을 강조하며 내면의 안정화를 구축하였다.[22]

그런데 이덕무의 독서는 공리에 대치되는 것을 넘어서 쾌락에 이끌려 다니는 탐닉에 가깝다는 것을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타자들은 이 모습을 병적이라 여겨 이덕무를 '간서치'라 명명하였다. 號는 이름처럼 타인에

---

20) 兪漢雋 또한 治世보다는 自娛로서의 문장을 추구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였다. 兪漢雋, 「自傳」, 『自著』 卷14. "漢雋雖文章自娛, 傷時命不偶, 不能策名樹功, 爲當世之用." 유한준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21) 對自는 卽自와 함께 헤겔 철학에서 역사의 변증법적 과정을 해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卽自란 사물이 직접 드러난 현상이나 존재, 실체를 가리키며, 對自는 그 실체에 대한 객관화를 통해서 인식되는 행위이자 주체화되는 상태로서 변증법적 지양을 거쳐 개념화된 인식된 상태를 가리킨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下, 국학자료원, 2006, 888-889면 참조. 이덕무의 '간서치'는 타자에 의해 부여된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립성을 잃게 되어 對他로 발전한다. 하지만, 지양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헤겔이 제시한 對自와는 다른 면모이다. 그럼에도 결국 '간서치'를 호로 삼았다는 것은 무자각 상태에서 자기의식 대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對自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22) 崔忠成, 「山堂書客傳」, 『山堂集』 卷2. "自知寡足眞堪笑, 賴有顔瓢一味長. 其爲養眞也則布被百結, 藜羹一盂, 一簞食, 一瓢飮, 得之則飽焉. 冬一裘, 夏一葛, 得之則服焉, 不以飢渴而苟得於人, 不以困窮而改其初心, 忍飢忍寒而講讀不撤."

게 호명되기 위해 명명한 것으로, 그들에게 호명되었을 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작품에서 간서치는 자신이 명명했다기보다는 타인이 명명한 것이고, 자신 또한 부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이덕무는 '간서치'라는 호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탁전의 방식인 '자기타자화'로써 자신을 객체화하였고, 서술 내에서는 '간서치'를 타자의 시선으로 그려냄으로써 재차 객체화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인물을 이상적으로 그려내기보다는 오로지 독서하는 모습을 핍진하게 서술하였다. 즉 '간서치'라는 호를 의론으로 개진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구체적 묘사하는 탁전의 전형을 활용한 것이다. 이는 白居易(772-846)의 「醉吟先生傳」에서 비롯되었는데, 「취음선생전」에서는 嗜・耽・淫 등의 과도한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 및 현실 생활에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崔奇南(1586-?)의 「拙翁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서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면모를 지닌다.[23] 그러나 이덕무의 「간서치전」처럼 안정감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면모와는 다르다.

또한 이덕무는 自娛인 독서의 즐거움을 타인과 공유하기보다는 개인의 영역에만 한정하였다. 나아가 그 즐거움을 논리로 개진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방식을 고집하는 태도만을 드러내었다. 이 과정에서 이덕무는 자기성찰적인 면모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내면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타인에게 의미가 없는 것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에 대한 의미부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즉 타자의 관점에서 정립된 자신의 단점을 그저 일관되게 보여주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고치지 못했다고 하기보다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덕무의 독서는 自娛이지만, 작품 내에서는 서술자와 서술대상 간에 철저한 거리감이 유지되면서 독서의 즐거움은 외부세계로 전달되지 않아 전반적으로는 고독의 정조에 가깝다. 이처럼 이덕무의 自娛는 타자화의 전략을 통해 개별성을 지닌다.

---

23) 崔奇南, 「拙翁傳」, 『龜谷詩稿』 卷3下. "以簡編自娛, 得會心處, 怡然忘憂, 興到則輒獨往林麓間, 吟嘯徜徉. 或於稠人羣處, 泯嘿如愚人, 談論是非, 不欲與人相較. 衆人之所趨, 羞不肓爭, 衆人之所捨, 守分安焉."

따라서 自娛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나와 이상적 나 사이에서의 내면적 갈등이 배제되어 있지만, 이는 탁전계열에서 구체적인 일화만을 기술하기 때문에 문면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오히려 자신을 타인에게 정확히 피력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서술의 바탕에는 문장가로서의 자부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24] 즉 타인의 시선에서 규정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자부심으로 치환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덕무가 자신의 傳에서 독서하는 모습만을 서술하였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덕무는 작품에서 自娛를 통해 그저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그려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철한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게다가 독서에 대한 즐거움은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그들과의 갈등 및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이 내재 되어 있기에 이덕무의 自娛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 이덕무만이 지닐 수밖에 없는 個我의 성격에 해당한다.

결국, 이 작품은 입전된 인물의 독서하는 모습에만 한정되어있는데, 이를 위해 이덕무는 타자화 방식을 여타 자전에서보다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타자화 전형의 유지가 아닌 변주의 결과를 가져왔다. 즉 형식의 전형성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에서 자신만의 배타적인 메시지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自娛의 추구과정에서 '간서치'는 타자화의 전략을 통해 對他的 방향이 아닌 오히려 철저히 자신에게만 국한하기 때문에 對自的 방향으로 이끄는 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이덕무의 정체성은 자기규정인 아닌 타인에 의한 것인데, 이덕무는 그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철저히 자기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객체인 '간서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덕무가 추구한 自娛는 개별성을 지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분열된 자신을 통한 자기위안과 정체성의 확립

設論을 활용한 자전에서는 자신의 타자화는 물론, 가상으로 설정된 인물인

24) 이덕무가 독서를 酷好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 삶의 지향점이 학문에 있음과, 지식인으로서의 내재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김경, 「李德懋 散文의 自己告白에 나타난 이중적 自我」, 『대동한문학』 제45집, 대동한문학회, 2015, 253-254면 참조.

客이나 或者가 등장한다. 다만 가상으로 설정된 客은 또 다른 자신을 의탁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들은 허구로 설정된 공간에서 문답을 통해 상반된 주장을 피력하는데, 주로 저자 자신을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대화나 일화를 삽입하여 현실적 문제와 삶의 지향점 등을 구현한다. 따라서 설론은 저자의 상상력이 한층 강화된 체재이기, 현실비판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현실에서의 갈등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 양상이다.

18세기 자전에서는 兪漢雋의 「自傳」이 주목되는데, 이 글은 1786년, 그의 나이 55세 때 저술된 것이다. 그런데 「자전」은 순수 창작물이 아니라, 유한준이 이전에 저술했던 「答朴永叔書」와 「右閭問數」를 改作한 것이다.[25] 이 중에서도 「우려문수」는 전형적인 설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1765년, 그의 나이 34세 때 지은 것으로, 『列子』에 나오는 운명과 재능의 불일치라는 모티브와 대화체 형식을 수용하고 있다.[26] 「우려문수」는 설문을 활용하여 자신을 타자화 한 右閭公父라는 인물과 가상인물인 東郭贅師, 즉 田선생과의 문답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개작한 「자전」 또한 설문을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右閭公父'를 '漢雋'으로 바꾸어 서술하여 자신을 표면화하였다.

표2. 〈「自傳」의 구성 및 「右閭問數」와 備考〉

구성	대단락	소단락	단락 내용	「自傳」원문	備考
도입부	①	①-1	유한준의 인물됨	漢雋雖文章自娛, 傷時命不偶, 不能策名樹功, 爲當世之用.	「자전」에는 우려공보(자신)에 대한 정보가 생략, 「우려문수」에는 "文章自娛" 가 없음
		①-2	田선생의 능력	聞東郭贅師田先生, (…) 百不失一二.	「우려문수」에 비해 전선생의 능력을 묘사하는 부분이 축약
		①-3	田선생을 찾아감	朝日之東郭市中.	전선생을 찾아가는 과정이 축약

25) 「자전」은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杞溪 兪氏의 족보를 중간할 때 직계 선조들의 가전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저술되었다. 이러한 찬술의 방식은 사마천의 「太史公自序」에서 비롯되었는데, 유한준은 史家들의 자술 전통과 당시 비교적 활발하게 창작되었던 自傳 창작의 경향 속에서 「자전」을 『가전』의 말미에 첨부하였다. 「자전」은 杞溪文獻本, 著菴集本, 自著本에 모두 실려 있다. 다만 기계문헌본이 초고형태이고, 저암집본은 개작형태이며, 자저본은 발췌요약, 수정한 부분이 많다. 본고에서는 개작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저본을 대본으로 삼았다.

26) 박경남, 앞의 글, 62면.

전개부	②	②-1	田선생에게 운수를 물음	謁田先生問數焉.	「우려문수」의 '1-2' 의 내용을 축약
		②-2	田선생의 再問	田先生曰, "子之所欲問, 在窮達乎, 在壽夭乎?"	「우려문수」에는 없음
		②-3	유한준의 答	漢雋曰, "在窮達耳."	개작과정에서 '窮達' 을 부각
	③	③-1	田선생의 問	田先生曰, "子第言所欲言."	
		③-2	유한준의 答 : 군자와 문장가로서의 포부	漢雋曰, "鄙人雖不佞, (…) 願聞先生之明教."	「우려문수」의 문장가에 대한 서술 부분 축약
	④	④-1	田선생이 점괘를 침	田先生乃鋪筵設席, 探囊擲錢, 六擲而得蹇之離.	「자전」에는 祝辭를 천지신명께 고하는 부분이 생략됨
		④-2	점괘에 대한 해설	其繇曰, '窾之木, (…) 子雖欲不貧以窮, 不可得也.	「자전」에는 우려공보가 점괘를 묻는 부분과 전선생의 점괘에 대해 해설 및, 우려공보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 생략
		④-3	田선생의 주장	夫物有所足, (…) 子休矣.	역사적 인물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거론한 부분이 생략
		④-4	노래로 공리를 포기할 것을 권고	乃歌曰, "貧飢子腹兮, (…) 與貧爲伴."	「자전」에는 노래 부분 축약
결론부	⑤		田선생의 말을 듣고 공리를 포기	雋聞其言, 爽然自失, 遂不復問數. 屛居南山下, 絶意於功名, 著書爲業.	"絶意於功名, 著書爲業." 은 「우려문수」에 없음

표2에서 확인하듯이, 유한준은 「우려문수」의 내용을 「자전」으로 개작하면서 상당 부분을 생략하거나 축약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자신의 고민이 窮達임을 선명하게 부각하였다. 「우려문수」에는 없었던 "文章自娛, 傷時命不偶"를 「자전」 ①에 서술하여 문두에서부터 자신의 고민을 표출하였다. 이는 ②-2의 田선생의 물음뿐만 아니라, ②-3의 "在窮達耳"와 연계되는 것으로, 자신의 고민이 窮達임을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문답식 서술의 생략과 자신의 운명을 재인식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 여기에서 재인식은 문장을 통해 입신양명하기보다는 '文章自娛'를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④와 ⑤는 「우려문수」에서 전선생의 점괘에 대해 우려공보가 재질문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자전」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또한 「자전」에는 "絶意於功名, 著書爲業"을 추가 서

술함으로써 공명을 포기하고 자신이 문장을 自娛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호하는 것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

정리하자면, 문말의 "著書爲業"이 문두에서의 "文章自娛"와 연계되면서 문장가로서의 원대한 포부가 사라지고 문장을 스스로 즐기는 것에 만족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전」에서 「우려문수」를 개작한 부분이 끝나고 이어지는 南有容(1698-1733)과의 대화 및 가상 인물인 或者와의 대화를 추가 서술한 부분과도 연계된다.[27] 남유용과 대화에서는 古人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자신이 문장을 自娛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변호한다. 아울러 혹자와의 문답에는 自娛한 결과로서 "尙氣力驅駕"한 문장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결국, 유한준은 「자전」을 통해 기존작품을 개작하면서 문장을 公的인 것이 아닌 私的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우려문수」와 「자전」은 21년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있다. 그 시간 동안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전」에서의 탄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전」은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면서 궁핍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자기위안적 글쓰기라 하겠다.

이제 「자전」을 설론의 방식으로 주목해 보자. 설론의 일반적 구성은 도입부에서 인물・배경・사건을 서술하다가, 전개부에서는 대립되는 두 인물의 논쟁이 그려지고, 결론부에서는 客으로 설정된 인물이 복종하는 것으로 끝맺는데, 이를 통해 저자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삶을 변호한다. 특히 전개부에서의 논쟁은 連問式을 바탕으로 자기 삶의 방식을 타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되므로, 그 내용에서 자기변호의 성격이 강하다.

유한준의 「자전」 또한 유사한 면모가 확인된다. 특히 「우려문수」를 개작

27) 俞漢雋, 「自傳」, 『自著』 卷14. "太學士南公謂漢雋曰, '古之有志者, 不得於顯則得於晦, 著書垂後是也. 子已窮矣, 何不積思慮考究古今之時變, 前惩之得失, 當時之事, 放失之舊聞, 整齊東傳, 傳之來世以自見乎?' 漢雋曰, '不然. 昔者, 左丘失明而後國語行, 太史去勢而後史記出, 此天刑也. 班固作漢書, 痩死獄中, 陳壽譔三國史, 起又廢, 范曄紀後漢之事, 族誅, 此人禍也. 彼其材足以精褒諱, 文辭足以動鬼神, 而作史不免於刑禍. 况謏聞寡識, 妄是非善惡, 犯神明之所忌, 蹈天人之禍, 何可勝言哉?' 於是, 其文亡所用, 游戲恣肆而已, 然老益喜著書自娛. 當是時, 文章之士甚衆, 而大抵皆質致儒雅, 體裁淘洗溫溫, 有大雅君子之風, 獨漢雋尙氣力驅駕爲能. 或曰, '子於文章, 無所畏忌. 何不殺繁絃而雅歌, 是就乎?' 漢雋笑曰, '何常惟所欲耳?'"

한 부분은 등장인물의 성격, 連問式 서술, 자기변호적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설론의 전형적인 면모를 지닌다. 특히 작품의 주지가 질문자와 답변자의 논쟁으로 구성되었고, 등장인물 모두가 자신이 허구로 설정된 것들이기에 논쟁 역시도 짜여진 각본과 같은 성격이다. 게다가 논쟁의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모순점과 비판을 담아내는 것 또한 전형적인 면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설론의 전형에서 벗어난 면모 또한 병존한다. 특히 문말의 "屛居南山下, 絶意於功名, 著書爲業."은 「우려문수」에는 없는 것으로, 개작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이다. 이는 유한준이 전선생의 의견에 따라 공명에 대한 뜻을 버리게 되었고 저술과 문장을 업으로 여긴 결과이다. 이 부분이 주목되는 이유는 가상의 타자로 설정된 전선생의 논지에 굴복한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자전에서 저자가 설정한 가상인물은 분열된 자신이거나, 자신과 이질적인 존재로, 자신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소위 열등한 존재로 설정된다.[28] 하지만 유한준의 「자전」은 설론을 활용하면서도 열등한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변주적 성격을 지닌다. 아울러 자전에서 자기변호는 자부심과 연계되는데, 주로 시대와 환경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외부적인 요인을 밝히기 위해 사용된다. 유한준의 「자전」 또한 자부심과 연계되지만, 문면에 표출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타자의 논조에 수긍하는 모습으로 서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모는 成侃의 「慵夫傳」의 방식과 유사하다. 성간은 작품에서의 등장인물들을 대립적 관계를 설정하였다가 풍류를 매개로 화합하고 결국, 용부는 부지런해지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그러나 작품 이면에는 세상에서의 게으름을 강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여유로운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귀결된다.[29] 유한준의 「자전」 또한 문면에서는 전선생의 논조에 수긍하여 자신

28) 일례로 조선중기 때 鄭仡의 「愚川隱者傳」에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은거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 객과 나의 논쟁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설론이란 체재를 변주하였다. 鄭仡, 「愚川隱者傳」, 『愚川集』 卷5. "客有語余曰, '鶴山之陰, 洞壑幽深, 其名爲愚川. 有一丈人來居之, 不知其所自, 不言其姓名. 曰吾愚人也, 故擇是川而居焉, 觀其所爲, 信不誣矣.' 余曰, '何如?'" 안세현, 『傳, 불후로 남다』, 한국고전번역원, 2018, 260면.

29) 「慵夫傳」의 특이점은 명칭에서부터 대비되는 慵夫와 勤修子라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데 있다. 표면적으로 용부는 성간 자신이며, 근수자는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다. 하지만 '慵'과 '勤'의 개념을

의 운명인 가난을 수용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나지만, 이를 통해 '文章自娛'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변호와 문장가로서 자기규정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용부전」은 게으른 자신을 희화화하는데, 유한준의 「자전」은 시종일관 진지한 서술과 침중한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작품에 등장하는 두 인물 간의 설정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려문수」에서는 5번에 걸친 문답을 통해서 치열한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반해, 「자전」에서는 유한준과 전선생의 문답은 2번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질문자인 유한준이 「자전」에서도 논쟁적 문제를 제기하는 자로 설정되어 있지만, 질문자의 성격보다도 자문자의 성격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전선생의 권고는 세속적 가치의 평가 기준을 顚倒하여 유한준 자신의 불우한 삶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설론의 방식으로 보자면, 이 말은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다짐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우려문수」에서 「자전」으로 개작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 내용 및 역설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유한준은 현실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문장에 대한 재능을 포기하기보다는 自娛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자기위안을 이끌어내었고, 그 과정에서 문장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설론에서 전형적인 방식인 분열된 자신을 통한 갈등과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자기위안과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변주적 양상이 확인된다.

지금까지 타자화 방식의 하나인 설문 체재의 특성을 유한준의 「자전」, 그 중에서도 「우려문수」를 개작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일차적으로 '文章自娛'하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설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논변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설론의 주된 특징인 허구적인 인물과 공간의 설정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였다. 이때 허구성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건과

형상화 한 것이기도 하다. 성간은 '慵'과 '勤'의 대립을 통해 여유로운 자신의 삶을 변호하였다. 심경호, 앞의 책, 298-301면 참조.

유사한 소재로 구현하였기에 자신의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었다. 다만, 설론은 '자기타자화'의 방식보다 허구성이 강하기에 유희적 요소를 동반하는데, 유한준의 「자전」은 시종일관 침중한 분위기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변주적 변모이기도 하다.

또한 유한준은 기존의 작품을 개작하여 「자전」으로 구현하였는데, 시차를 두고 개작하였기에 그러한 점에서부터 여타 자전들과 이별 되는 특징을 지닌다. 즉 개작을 통해 유한준은 자신을 반추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유한준은 거듭된 설론을 통해 자신의 변화과정을 그려내었기에, 자신의 존재에 자족하는 면모는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변화과정에서 오는 내적인 고충 때문에 과거의 시점에서 저술된 자신을 재확인하면서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설론이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을 타자화하였다.

4. 18세기 自傳에서 他者化의 의미 : 결론을 대신하여

이 장에서는 이덕무와 유한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18세기 자전에서 타자화의 의미를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이덕무와 유한준의 자전은 형식적 측면인 서술방식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이덕무의 「간서치전」에서는 서사가 주된 서술방식인데, 유한준의 「자전」에서는 문답의 형식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서사와 의론이 혼합되어 있다. 이는 탁전계열과 사전계열이라는 장르적 차이이기도 하지만, '자기타자화'와 '설론'이라는 타자화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과도 연계된다. 이덕무는 자신을 타자화함으로써 자기정체성의 안정을 유지한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에 자족하는 경향을 보인다.[30] 반면 유한준은 타자에 의해 자기의 정체성이 轉折을 당하면서 혼란이

30) 자족적 삶의 태도는 「오류선생전」을 비롯한 여타 자전의 특징이다. 실제로는 좌절감과 두려움이 자전 창작의 동기로 작용했을지라도 자전의 내용 중에는 이러한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자족적 태도와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현실의 벽을 넘어 후일을 기약하는 자신감이야말로 작가가 자전을 창작하는 동기가 되었다. 고은, 「사대부 자전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19면.

야기되었기에, 자신의 기존의 작품을 개작하면서 자신에 대해 성찰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다. 즉 이덕무와 유한준은 자전의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대척에 놓인다. 이덕무는 타자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타자들에 의해 정립된 자신의 정체성을 타자들과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즉 자신과 세상의 불화를 문면에 표출하지 않았다. 반면, 유한준은 타자의 시선을 극렬하게 부정하였기에 자신과 세상 간의 불화를 부각시키면서 불우한 지식인의 면모를 계승하였다. 따라서 이덕무는 타자화 전략을 통해 철저히 타인의 시선으로 일관하면서 자기정체성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유한준은 분열된 자신이나, 타인과의 문답을 중첩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사점이라 한다면, 자신의 삶을 변호하고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문면에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음에도 결국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는 형식에서의 타자화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에서의 변주를 통해 구현한 것이다. 특히 타자화 방식이 허구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유희적 요소가 가미되지만, 이들은 진중한 서술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희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희박하였다. 아울러 자기규정을 통해 확인한 자기정체성에는 유사한 면모가 확인되는데, 바로 문장가이다. 이덕무와 유한준의 '文章自娛'는 자전에서 문인들이 상투어처럼 사용해왔던 용어이다. 하지만 이덕무와 유한준은 그 말을 끌어와 자신의 글쓰기가 주자학적인 의론을 취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일조하려는 것도 아니라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이들의 自娛는 公的인 것이 아니라 私的인 성격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 및 행위의 기저에는 문장을 공리적 요소로 인식하기보다는 사적 요소로 여긴 것에서 기인한다.

정리하자면, 이덕무와 유한준은 타자화라는 자전의 전형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 타자화 방식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전대보다 견고한 방식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내용상에 있어 자신을 당대의 인식망에서 일탈한 존재로 규정하였다. 이 지점에서 18세기 자전의 변주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형식에서는 전형성을 강화하면서도 내용상에서의 변주

를 추구하였는가?'라는 물음을 발생시킨다. 타자화란 방식은 전형성을 지니기에 이들이 자전의 전형성을 강화하였다는 것은 판에 박힌 틀을 통해 개성적 면모를 표출하려 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자전의 전형을 통해 타인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탈적 면모는 자전의 전형인 타자화를 통해 타자 및 동시대의 인식망과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자전에서의 내적 혼란을 야기하면서도 결국 자전으로서 성립이 가능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8세기 산문에서 변주와 전복을 주장한 문인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개성과 독특성의 추구이다. 개성과 독특성이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18세기에 개성적 면모가 부각되는 문인들 또한 자전적 글쓰기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을 저술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시기뿐만 아니라 자전을 통해 자신을 서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문인들은 대체로 자신을 불우한 인물로 인식하였다. 이에 작가 스스로가 타인에 의해 입전의 대상이 되어 후대에 전할 만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기록이 타인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자신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자는 자신만이 유일하다는 이유가 저술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18세기 자전에서의 저술동기는 전자보다 후자의 양상이 부각된다.

朴齊家(1750-1805)는 자신의 傳에 대한 저술동기를 贊에 기록하였다.[31]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가고 타인의 기억에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한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傳이다. 그런데 박제가는 전의 기본적 특징에다 다른 점을 추가하였다. 즉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이 있어야지만 입전의 대상이 불후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의 개성과 독특성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사람만의 개성과 독특성은 타인이 알기 어렵다. 이러한 주장은 전의 저자가 자신이

31) 朴齊家, 「小傳」, 『貞蕤閣集』 卷3. "贊曰, '竹帛紀而丹靑摸, 日月滔滔, 其人遠矣. 而況遺精華於自然, 拾陳言之所同, 惡在其不朽也. 夫傳者傳也, 雖未可謂極其詣而盡其品乎, 而猶宛然知爲一人, 而匪千萬人, 然後其必有天涯曠世而往, 人人而遇我者乎!'"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한다. 이러한 저술동기의 이면에는 심리적 기제인 소외감이 또한 자리한다. 소외감에는 외적인 요소와 내재인 요소가 병존하는데, 외적인 요소는 주류사회로 편입할 수 없는 신분적 위치나,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당대 현실이다. 내적인 요소는 당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또는 맞출 수 없는 자기정체성이다.

이처럼 18세기에 자신을 저술대상으로 삼아 일탈적 글쓰기를 추구한 문인들은 저술동기에 있어 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무엇보다 자신이 확인한 정체성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체성 사이의 괴리감이 일차적인 저술동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확인한 정체성은 이전 시대를 거쳐 형성된 인식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전에서 형식의 파괴가 아닌 내용에서 변주하는 데에 그쳤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자전의 전형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동시대 및 후대에 이해받고자 하는 의도였기에 한계가 아닌 보편성의 유지라 하겠다. 또한 허구성을 수반하는 타자화 방식을 활용하면서도 유희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저자가 자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절실함 때문이며, 자기 존재의 증명을 위해 고심했던 흔적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18세기 자전에서의 타자화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한 타자화 방식의 기본 목적은 '자신을 낯설게하기'이다. 즉 자신을 남처럼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것은 허구성을 傳에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허구성은 자신을 타자화하는 방식보다 설론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객체화 및 분열이란 방식이 바로 자전이 史傳과 구별되는 특징이자, 서구의 자전문학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그런데 18세기 자전에서 '자신을 낯설게하기'는 형식보다는 내용에서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먼저 형식에서 낯설게하기는 인식의 모호함을 유발하여 당대 보편화된 인식을 파괴하거나, 인식을 지연하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보편화된 인식을 활용하였다. 타자화 방식이 허구성을 수반하면서도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형성된 공통적 인식망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내용에 있어서 낯설게하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대 사유의 한계선에서 발생하는 인식에 저항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문장에 대한 인

식과 추구방식에서 있어 기존과 다른 면모를 부각하면서 자신을 일탈한 존재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8세기 자전에서의 타자화 방식은 형식에서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에서는 일탈적 면모를 추구하였기에, 당대 보편적 인식의 파괴가 아닌 인식을 지연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다만 18세기 타자화의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전문학에서 다른 장르인, 자찬묘지명・자찬연보 등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설론은 자전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는 만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 〈부록-1〉 중국 자전의 목록 및 양상

번호	시기	작품명	저자	인칭	설론	계열	투식	비고
1	魏晋	五柳先生傳	陶潛	3	×	탁전	不知姓名, 贊, 성품(嗜酒)	
2	魏晋	妙德先生傳	袁粲	3	×	탁전	성품(嬾)	
3	唐	無心子傳	王績	3	△	사전	성품(儒)	
4	唐	五斗先生傳	王績	3	×	탁전	성품(嗜酒)	
5	唐	陸文學自傳	陸羽	3	△	탁전	不知何許人	
6	唐	醉吟先生傳	白居易	3	△	탁전	忘其姓字, 성품(嗜酒), 附詩	
7	唐	子劉子自傳	劉禹錫	3	△	사전	銘	
8	唐	甫里先生傳	陸龜蒙	3	△	탁전	不知何許人	
9	唐	江湖散人傳	陸龜蒙	3	○	탁전		설문최초
10	宋	東郊野夫傳	柳開	3	○	탁전	不知其族	
11	宋	退士傳	种放	3	△	탁전	不知孰氏 성품(恬易)	
12	宋	六一居士傳	歐陽脩	3	○	탁전	호에 대한 해명	설문확장
13	宋	無名君傳	邵雍	3	○	탁전	附詩	
14	宋	一是居士傳	鄭思肖	3	×	사전		
15	金	王子小傳	金王鬱	3	×	사전		
16	明	鐵笛道人自傳	楊維楨	3	×	사전	贊	
17	明	石羊生小傳	胡應麟	3	△	사전		서적나열
18	明	自傳	楊廷楨	3	×	사전		
19	明	尋雲子傳	王師道	3	×	사전		
20	明	白牛生傳	宋濂	3	△	탁전	성품(勤), 贊	
21	明	北山野史傳	李先芳	3	△	탁전		
22	明	識字耕夫傳	李昱	3	×	탁전	不知姓氏, 太史公曰	
23	明	梅顚道人傳	周履靖	3	×	탁전	성품(嗜梅), 贊	
24	明	弘齋先生自傳	昭經邦	1	×	사전		
25	明	滄浪生傳	孫七政	3	×	탁전	不知何許人, 贊	
26	明	石川子傳	殷雲霄	3	×	사전		
27	明	羣仙自傳	高濂	3	×	사전		
28	明	病居士自傳	張大復	3	△	탁전		
29	明	太鶴山人傳	陳中州	3	×	탁전	不知何許人	
30	明	一笑生傳	陳所學	3	×	탁전		
31	明	九山山樵傳	陸樹聲	3	△	탁전	不著姓字, 성품(嗜茶)	

32	明	乖龍丈人傳	屠本畯	3	△	탁전		
33	明	臨終自傳	黃省曾	3	○	사전		
34	明	瘦居士自傳	董斯張	3	×	사전		
35	明	愚公傳	虞淳熙	3	△	탁전	忘其名	
36	明	少谷子傳	鄭善夫	3	×	탁전	성품(拙懶)	
37	明	來無名先生傳	鄭鄤	3	×	탁전	不知何許人, 贊	
38	明	畸人傳	錢世揚	3	△	사전		
39	明	韓忠定公自傳	韓文	3	×	사전		
40	明	八不道人自傳	釋智旭	3	×	사전		
41	淸	無悶先生傳	應撝謙	3	×	탁전	不知何許人	
42	淸	朱布衣傳	朱用純	3	×	사전		
43	淸	天同一生傳	王錫闡	3	×	탁전		
44	淸	靑門老圃傳	邵長蘅	3	○	탁전	逸其名, 贊	
45	淸	弢園老民自傳	王韜	3	×	사전		
46	淸	白眼居士小傳	徐柯	3	○	탁전	不詳其姓字, 贊	
47	淸	冷紅生傳	林紓	3	○	탁전	不詳其族	
48	淸	哭盦傳	易順鼎	3	×	탁전	不知何許人	

* 사전계열과 탁전계열의 구분기준은 자신을 허구적인 인물로 설정하였는지의 여부임.
* 설론에서 △는 가상의 타자와 문답이 아닌, 이외의 문답법을 활용한 양상임.

▮ 〈부록-2〉 한국 자전의 목록 및 양상

번호	시기	작품명	저자	인칭	설론	계열	투식	비고
1	高麗	白雲居士傳	李奎報	3	△	탁전	不知姓名, 酒, 贊	
2	高麗	猊山隱者傳	崔瀣	3	△	탁전		
3	朝・初	慵夫傳	成俔	3	○	탁전	不知何許人, 성품(慵)	설문최초
4	朝・初	浮休子傳	成俔	3	○	탁전	贊	
5	朝・初	山堂書客傳	崔忠成	3	○	탁전	不知何許人	
6	朝・中	慵隱居士傳	兪泓	3	△	탁전	성품(嗜酒), 贊	
7	朝・中	炊沙老翁傳	李汝馨	3	○	탁전	不知何許人	
8	朝・中	無何翁傳	朴仁老	3	○	탁전	不知何許人	
9	朝・中	拙翁傳	崔奇男	3	△	탁전	不知何許人, 附詩	
10	朝・中	松月子傳	李時善	3	○	탁전	不知何許人	
11	朝・中	湖陽子自傳	權益昌	3	△	사전	성품(痴), 贊	
12	朝・中	自譜行業	蓮潭有一	3	△	사전	不知孰氏 성품(恬易)	
13	朝・中	自傳	趙任道	3	○	사전	不知姓字, 贊	탁전과 유사
14	朝・中	愚川隱者傳	鄭俁	1, 3	○	탁전	不言其姓名, 성품(愚)	인칭혼용
15	朝・後	六化翁傳	梁居安	3	×	탁전	不知何許人	
16	朝・後	喫眠居士傳	姜碩慶	3	△	탁전	不知何許人, 贊	
17	朝・後	自傳	兪漢雋	3	○	사전		설론이 강조
18	朝・後	東方一士傳	李瀷	3	×	탁전	不傳其姓氏	
19	朝・後	看書痴傳	李德懋	3	×	탁전	不記其名姓, 성품(痴)	
20	朝・後	小傳	朴齊家	3	×	사전	贊	
21	朝・後	經畹先生自傳	趙秀三	3	△	사전		연보형태
22	朝・後	蘐隱先生傳	李章贊	3	△	탁전	以其姓名不能爲世所知, 贊	
23	朝・後	含華子傳	梁進永	3	△	탁전	贊	
24	朝・後	自傳	黃五	3	×	사전	太史公曰	
25	朝・後	明菴傳	鄭栻	3	○	탁전	不知何許人, 贊	
26	朝・後	靈長山客傳	安鼎福	3	△	탁전	野史氏曰	독서
27	朝・後	自知自不知先生傳	趙冕鎬	3	○	탁전	不知何許人	
28	朝・後	三花傳	草庵	3	×	탁전	不知何許人	
29	朝・後	溪園退士自傳	金昌熙	3	○	사전	성품(訥), 贊	

▮ 참고문헌

朴齊家,「貞蕤閣集」,『한국문집총간』261, 민족문화추진회.
兪致雄 編,『杞溪文獻本』, 재단법인 富雲奬學會, 1963.
兪漢雋,「自著」,『한국문집총간』249, 민족문화추진회.
兪漢雋,『著菴集』, 여강출판사, 1987.
李德懋,「靑莊館全書」,『한국문집총간』257-259, 민족문화추진회.
鄭 仩,「愚川集」,『한국문집총간』속29, 민족문화추진회.
趙秀三,「秋齋集」,『한국문집총간』271, 민족문화추진회.
崔奇南,「龜谷詩稿」,『한국문집총간』속22, 민족문화추진회.
崔忠成,「山堂集」,『한국문집총간』16, 민족문화추진회.

杜聯喆,『明人自轉文鈔』, 藝文印書館, 1977.
郭登峯,『歷代自敍傳文鈔』, 臺灣商務印書館, 1965.

가와이코오조오, 심경호 옮김,『중국의 자전문학』, 소명, 2002.
고 은,「사대부 자전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김 경,「李德懋 散文의 自己告白에 나타난 이중적 自我」,『대동한문학』제45집, 대동한문학회, 2015, 247-277면.
김기완,「조선후기 사대부 초상화찬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9.
김수진,「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어문연구』제41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353-373면.
_____,「조선시대 자편문집에 대한 탐사—규장각 소장 자편문집의 발굴과 분석」,『서지학연구』제68집, 한국서지학회, 2016, 63-94면.
박경남,「兪漢雋의 道文分離論과 散文 세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박혜숙・최경희・박희병,「한국여성의 자기서사(1)」,『여성문학연구』제7집, 한국여성문학회, 2002, 323-349면.
심경호,『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가서, 2010.
안득용,「자아의 유형에 따른 전근대 자서전의 분류와 그 형성 배경」,『고전과해석』제17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4a, 259-299면.
_____,「조선후기 자서전의 특징적 局面과 그 의미」,『한국한문학연구』제56집, 한국한문학회, 2014b, 423-458면.
_____,「自托傳의 각 계열에서 보이는 자기인식의 형상과 그 의미」,『한국한문학연구』제71집, 한국한문학회, 2018, 45-84면.
안세현,『傳, 불후로 남다』, 한국고전번역원, 2108.
우지영,「문답식 한문산문에 대한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3.
임준철,「支流와 還流 : 自傳文學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自挽詩」,『민족문화연구』제76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51-99면.
정용건,「조선후기 문집 自序의 창작과 그 특징—자기 사사로서의 면모와 관련하여」,『민족문학

사연구』 제6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75-110면.
찰스테일러, 권기돈・하주영 옮김, 『자아의 원천들』, 새물결, 2015.
필립르죈,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下, 국학자료원, 2006.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CD-ROM),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0.
「韓國文集叢刊」,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Abstract】

The Aspect and its meaning of an Otherizing in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the 18th Century—Focusing on Lee Deok-Mu and Yu Han-Jun—

Kim, Kyung*

This paper verified typical patterns and variations in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the 18th century through an otherizing aspect. In autobiographical writings, typical strategies of an otherizing are 'self-otherization' and 'Seol-ron (設論)'. Since an autobiographical writing is a sub-genre of writing of a historical document, 'self-otherization' follows this style. In other words, an autobiographical writing is a document about oneself and reflects a position of a public chronicler as well. 'Seol-ron (設論)' is a way of narrating through the dialogue with the imaginary person. In an autobiographical writing, it was mainly used as a method of justifying one's life pursued by the writer under the literary settings of answering cross-questionings.

In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the 18th century, strategies of an otherizing were both typical and varied. In the *GanSeoChiJeon* (看書痴傳) by Lee Deok-Mu (李德懋), the object called GanSeoChi (看書痴) became the subject through a aspect of self-otherization, and a self-delight (自娛) pursued by Lee Deok-mu expressed his unique individuality at the same time. Yu Han-Jun (俞漢雋) confirmed his identity by reaffirming himself described with the past tense through Seol-ron (設論) in his *JaJeon* (自傳). In this process, he did not only otherize himself, but also comforted himself and discovered his identity through divided self. In conclusion, a aspect of an otherizing called 'self-defamiliarization' through fictiveness was confirmed. However, in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the 18th century, 'self-defamiliarization' became more meaningful in a content than in a format. In other words, while the format preserved the typicality of an otherization, the content defined 'self-delight with great writings (文章自娛)' as private, not official, and resisted the fixed ideas of the day.

* Instructor, College of Liber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Keywords: Autobiographical Writing, Otherization, Seol-ron (設論), Defamiliarization, Lee Deok-Mu, Yu Han-Jun.

접수일: 2018.12.31. ‖ 심사일: 2019.01.09. ‖ 게재확정일: 2019.02.11.